



# KWC를 통해 만나는 미지의 산지들

수천 년의 와인 양조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나라임에도 마냥 생소한 곳들이 많다. 와인의 요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지만 막상 그 와인을 맛 볼 기회는 적었던 조지아, 조지아 못지 않는 긴 양조 역사를 자랑하는 루마니아, 공산정권의 붕괴 이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불가리아,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맥주로 친숙하지만 실은 숨은 와인 맛집인 체코, 역사적으로 좋은 와인을 생산해왔던 아드리아해의 크로아티아, 요즘 떠오르는 와인 산지 몰도바 같은 나라들 말이다. 다행인 것은 이런 흥미로운 산지의 와인들을 일부나마 코리아와인챌린지(이하 KWC)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역대 KWC 수상 와인들과 함께 미지의 산지들로 한 걸음 다가가보자. 글 강은영 사진 Wikipedia, Pixabay

## Morocco

모로코

북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모로코는 높은 산들과 무더위를 식혀 주는 대서양의 영향으로 질 좋은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곳이다. 이 땅에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페니키아 인들로 알려져 있고, 이후로는 유럽의 와인 역사가 그렇듯 고대 로마인들에 의해 발달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웃의 알제리와 더불어 이 땅을 식민 통치했던 프랑스인들이 대규모로 포도밭을 경작했다. 1956년 모로코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 55,000ha에 이르는 포도밭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1967년 EEC가 수출량에 제한을 두면서 시장에서의 자리를 잃고 다른 와인 생산국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와인 비즈니스는 상당히 위축됐다. 다시 회복의 기회를 마련한 것은 1990년대, 외국인들의 와인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다. 오늘날 모로코는 2016년 기준, 포도밭 면적은 49,455ha, 연 와인생산량은 349,000hl다. 아랍국가에서는 알제리 다음으로 큰 와인생산국이다. 아랍국인 모로코는 법적으로 술을 생산할 수 있으나 무슬림들에게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모로코의 와인산지는 크게 다섯 개 지역으로 나뉜다. 동부(East), 메크네스/페스(Meknes/Fes) 지역, 북쪽 평야(Northern Plain), 엘 자디다(El Jadida), 그리고 라뵈트/카사블랑카(Rabat/Casablanca) 지역이다. 메크네스 지역은 특히 중요한 와인산지들의 포도밭이 모여 있다. 또 이 안에는 14개의 AOG(Appellation d'Origine Garantie) 지역이 있다. 2001년에는 첫 AOC(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가 탄생했는데, 메크네스 지역에 있는 꼬뜨 데 라트라스(Coteaux de l'Atlas 1er Cru)다. KWC 2019에 출품했던 레 셀리에르 드 메크네스 와인산지도 이 AOC 와인을 생산한다.

모로코에서 생산되는 와인의 비중은 레드 와인이 절대적으로, 75% 이상을 차지한다. 로제 와인은 20% 정도며, 화이트가 2~3%로 비중이 아주 낮다. 재배되는 주요 레드 품종으로는 까리냥, 썬소, 알리칸테, 그르나슈,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시라가 있으며 화이트로는 클레벳 블랑쉬, 무스캇, 샤르도네, 슈냉 블랑, 소비뇽 블랑 등이 있다.



### 주요 KWC 수상 와인

- KWC 2019 Gold** Les Celliers de Meknes Chateau Roslane 1er Cru White
- KWC 2019 Silver** Les Celliers de Meknes Chateau Roslane 1er Cru Red
- KWC 2019 Silver** Les Celliers de Meknes Ksar Bahja
- KWC 2019 Silver** Les Celliers de Meknes Les Trois Domaines Guerrouane Rouge
- KWC 2015 Silver** Les Celliers de Meknes Domaine Riad Jamil
- KWC 2015 Trophy Rose** Les Trois Domaines Guerrouane Rose

# Romania

루마니아



루마니아는 유럽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다음으로 큰 와인생산국이다. 2018년 기준 루마니아의 와인 생산량은 520만hl에 이른다. 또 와인 양조 역사를 더듬어보면 가장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국가 중 하나다. 거의 6,000년 전 이 땅에서 포도를 재배한 증거가 나온다. 중세 때는 삭손(Saxon) 계열의 이주자들이 루마니아에 유입되면서 와인 양조 기술을 들여왔다. 역사가 깊은 만큼 이 지역 토착종들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1890년대 필록세라의 여파로 거의 모든 포도밭이 폐허가 되었다가 복구되면서는 메를로, 샤르도네, 피노 누아 같은 국제품종들이 많이 유입되었다.

루마니아는 1989년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와인 산업 부흥의 계기를 마련했다. 2007년에는 EU의 멤버가 되어 새로운 와인 법규들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와인 등급체계는 테이블 와인 격인 'Vin de Masa'부터 IGP급인 'Vin cu Indicatie Geografica', 그리고 AOP에 해당하는 'Denumire de Origine Controlata'로 나뉜다. 루마니아는 유럽의 내륙에 자리 잡아 전반적으로 대륙성 기후를 띤다. 여름은 덥고 건조하며 겨울은 상당히 춥다. 와인산지는 몰다비안 언덕(Moldavian Hill), 문테니아 언덕(Muntenia Hills), 올테니아 언덕(Oltenia Hills), 크리샤나 마

라무레아스(Crișana Maramureș Hills), 다뉴브 평원(Danube Plain), 도브르게이 언덕(Dobrogea Hills), 트란실바니아 고원(Transylvania Plateau), 바나트 언덕(Banat Hills)까지 8개로 나뉜다.

특히 잘 알려진 DOC 지역으로는 문테니아 지방의 데알루 마레(Dealu Mare)가 있다. 이 지역은 특히 화이트 와인으로 유명하다. 루마니아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페테아스카 레갈라(Fetească Regală)와 페테아스카 알바(Fetească Albă)로 둘 다 화이트 품종이다. 그 외 화이트 종은 리슬링, 게뷔르츠트라미너, 피노 그리, 뮌스카, 소비뇽 블랑이 많이 재배된다. 가장 잘 알려진 레드 품종은 페테아스카 네아그라(Fetească Neagră)다. 그 외 보르도 품종인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가 많이 재배되며, 피노 누아와 블라우프랭키쉬도 잘 알려져 있다.



### 주요 KWC 수상 와인

- KWC 2019 Silver**  
Budureasca Cabernet Sauvignon Vine In Flames  
Budureasca Feteasca Neagra  
Budureasca Tamaioasa Romaneasca Premium
- KWC 2017 Best Romania Red**  
Chairman's Reserve Hyperion Cuvée Roumaine
- KWC 2017 Gold** Lacerta Cuvée IX
- KWC 2017 Silver** Vinarte Soare
- KWC 2016 Gold** Vinarte Prince Mircea
- KWC 2015 Bronze**  
SC Domeniile Anima Dealu Mare Syrah

# Moldova

몰도바

유럽의 남동부,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 포도송이 모양을 한 몰도바가 자리하고 있다. 위도로는 46~47° 즉, 유럽의 유명 와인 산지들과 비슷한 위치다. 몰도바의 지형은 낮은 언덕이 이어지는가 하면 태양이 내리쬐는 고원과 평야가 펼쳐진다. 프루트와 드네스테르, 두 커다란 강은 다시 여러 지류로 흩어진다. 흑해의 영향으로 대륙성 기후의 특징은 조금 완화된다. 여름은 길고 따뜻하며, 겨울도 비교적 춥지 않아 포도 생산에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몰도바는 유럽에서 와인 생산 규모로는 11번째다. 2018년 기준 연간 2백만 hl의 와인을 생산하며, 국민의 1/3이 와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몰도바에서 와인은 중요한 산업이다. 몰도바에는 다채로운 토착품종들이 재배됐는데, 19세기 후반에는 프랑스 품종들도 대거 식재됐다. 이후 필록세라의 창궐과 양차 세계대전으로 몰도바의 와인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1950년대 소비에트 연방 시절 포도밭들이 다시 재건되지만, 2006년 러시아와의 정치적 갈등으로 러시아가 몰도바와 조지아 와인을 금지하면서 또 한 번 피해를 입게 된다. 수출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몰도바의 와인 생산자들은 새로운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몰도바의 와인산지는 크게 네 지역으로 나뉜다. 북부의 발티(Balti), 중앙의 코드루(Codru), 남동부의 푸카리(Purari), 남부의 카홀(Kahul) 지역으로 특히 남부와 남동부의 지역들이 이름나 있다. 재배되는 주요 토착품종에는 화이트로는 페테아스카 알바(Fetească Albă), 페테아스카 레갈라(Fetească Regală), 프라바이(Plavai), 부수이오아카 알바(Busuiocă Albă), 레드에는 페테아스카 네아그라(Fetească Neagră), 라라 네아그라(Rară Neagră) 등이 있다. 그 외 샤르도네, 피노 블랑, 소비뇽 블랑, 피노 누아,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등 국제품종들도 많이 볼 수 있다. 포도 식재 비율을 보면 화이트 품종이 70%로 압도적이다.



### 주요 KWC 수상 와인

- KWC 2019 Gold** Cricova Pinot Noir Extra Brut
- KWC 2019 Silver** Castel MiMi Classic Merlot
- KWC 2013 Gold** Rosu de Purcari
- KWC 2013 Bronze** Alb de Purcari



# Bulgaria

불가리아

불가리아의 와인 역사는 3,000여 년 전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이후 와인 산업이 순탄치는 못했다. 15~19세기까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500여 년간 와인 산업은 암흑기였다. 무슬림의 영향권 아래에서 와인 산업이 융성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1878년 마침내 불가리아가 독립을 하면서 와인 산업도 차츰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 1930년대에 이르러는 근대 와인 산업의 틀을 갖추었다. 해외에서 국제 포도종을 들여오고 운영 관리 체제를 협동조합 시스템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1940~1980년대는 소련 블록의 멤버로 대량의 질 낮은 와인을 대부분 소비에트 연방에 팔곤 했다. 그러다 1989년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하면서 대변혁을 맞았다. 국가 소유의 땅과 와이너리는 개인에게 돌아가고, 해외 투자가 유치된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많은 생산자들이 와인의 퀄리티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발칸 반도 남동부에 위치한 불가리아는 동쪽에 흑해가 있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지중해와 가깝다. 인근의 바다와 발칸 산맥 등의 자연환경으로 인해 지역별로 기후의 특징이 뚜렷하게 달라지는데, 북부로 갈수록 대륙성 기후가 두드러진다면 남부는 좀 더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을 보인다. 불가리아의 와인 산지는 크게 5곳으로 나뉜다. 북부의 다뉴브 평원(Danubian Plain), 동쪽의 흑해 연안, 남부의 트라키안 밸리(Thracian Valley), 서

브 발칸 지역(Sub-Balkan Region)에 있는 로즈 밸리(Rose Valley), 그리고 동남부의 스트루마 리버 밸리(Struma River Valley)다. 특히 주목할만한 지역은 북부의 수힌돌(Suhindol)과 남부 트라키안 지역의 하스코보(Haskovo)이다. 불가리아에는 여러 토착품종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은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다. 전체 포도밭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레드 토착종으로는 마브르드(Mavrud), 루빈(Rubin), 감자(Gamza) 등이 대표적이다. 화이트로는 레드 미스켓(Red Misket), 포도껍질이 열린 붉은 빛을 띠고 있어 이름에 레드\*가 들어가지만 화이트 와인을 빚는데 쓰인다, 디미얏(Dimyat), 뫼스카 블랑 외 샤르도네와 소비뇽 블랑도 종종 볼 수 있다.



### 주요 KWC 수상 와인

- KWC 2018 Gold** Sterna Starosel
- KWC 2017 Gold** Arte Ante
- KWC 2017 Gold** Black Sea Gold Salty Hills Red
- KWC 2017 Silver** Black Sea Gold Golden Rhythm Grand Prix Rose
- KWC 2014 Best Bulgaria Red** Villa Yustina Monogram Mavrud & Rubin
- KWC 2014 Gold** Elenovo Cabernet Franc
- KWC 2014 Gold** Elenovo Merlot



# Croatia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는 아드리아 해를 사이에 두고 이탈리아와 마주보고 있다. 약 2,500여 년 전 고대 그리스인들이 크로아티아의 남부 달마티아 지역에서 와인 양조를 시작했다. 와인 양조 역사가 오래 이어져 온 만큼 여전히 많은 토착종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며, 일찍이 질 좋은 와인을 생산해 온 곳이다. 현대에 와서는 1991년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에서 독립하고, 2013년 EU의 일원이 되면서 크로아티아 와인 산업은 좀 더 정비되고, 수출도 크게 늘어났다. 와인 산지로 지정된 곳은 300여 곳이 넘지만, 지리적으로는 크게 3개의 존으로 나뉜다. 달마티아(Dalmatia)와 주변 섬 지역, 이스트리아(Istria) 반도, 그리고 크로아티아 내륙의 대륙성 지역(Continental Region)이다. 크로아티아는 화이트 와인의 생산 비중이 훨씬 높은 나라로, 내륙 지역에서 화이트 와인을 많이 생산하고 레드 와인은 해안 지역에서 더 발달해 있는 편이다.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를 띠는 달마티아 해안 지역은 특히 해상에서 훌륭한 와인이 난다. 이름난 산지에 흐바르(Hvar), 브라츠(Brac), 비스(Vis) 등이 있다. 플라바츠 말리(Plavac Mali)는 달마티아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 레드 품종으로 와인으로 빚으면 알코올과 탄닌이 높고 풍만한 스타일을 보여준다. 플라바츠 말리가 크로아티아의 대표적인 레드 토착종이라면, 화이트의 대표적인 품종에는 포십(Pošip)이 있다. 이 역시 달마티아에서 주로 재배되며 알코올이 높으면서도 좋은 산도감과 과일 풍미를 가진 와인으로 만들어진다.

북쪽 해안지대인 이스트리아 반도의 주된 포도종으로는 화이트에 말바지아(Malvasia), 레드에 테란(Teran)이 있다. 토착종인 테란은 달마티아 지역의 레드에 비해 좀 더 라이트하며 산도가 있는 편이다. 대륙지역(Continental Region)은 다시 크로아티안 업랜드와 좀 더 내륙 안에 있는 슬라보니아(Slavonia) 지역으로 나뉜다. 서늘한 편인 크로아티안 업랜드에서는 리슬링, 소비뇽 블랑, 푸르민트 등의 품종으로 빛은 신선한 화이트 와인을 비롯 상큼한 스파클링 와인들을 생산한다. 한편 슬라보니아의 주된 포도종에는 그라세비나(Grasevina)가 있는데, 상큼한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이다.



### 주요 KWC 수상 와인

- KWC 2016 Best Central Europe Red** Vina Laguna Festigia Castello
- KWC 2016 Silver** Vina Belje Grasevina
- KWC 2016 Silver** Vina Laguna Festigia Malvazija
- KWC 2015 Gold** Vina Laguna Festigia Castello
- KWC 2015 Silver** Vina Laguna Festigia Riserva Malvazija Vizinada
- KWC 2012 Bronze** Zlatan Pošip
- KWC 2012 Seal of Approval** Zlatan Bogdanusa

# Czech Republic

체코



체코의 술이라면 흔히 맥주를 먼저 떠올리겠지만, 이 나라의 와인 양조 역사도 2천년을 넘어간다. 더욱이 최근 국내 시장에도 선보였던 체코의 와인들을 보면 특유의 개성과 수준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KWC 2017에서 베스트 체코 화이트 와인이 선정된 것만 봐도 그렇다. 1989년 11월 벨벳 혁명 이후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1993년 슬로바키아와 분리하여 체코 공화국이 탄생하면서 이 나라는 큰 변화를 거쳤다. 국가 소유의 포도밭은 민영화되고 가족 경영의 와이너리가 부활했다. 또 새로운 와이너리들이 설립됐다.

1995년에는 와인법이 제정되고 2004년 체코가 EU의 일원이 되면서 와인 산업은 다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포도 수확에서부터 와인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EU 법에 따르게 되었다. 와인 산지가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두 지방으로 지정된 것도 이 때의 법령을 통해서이다. 체코의 와인은 거의 모라비아 지방의 와인인 동시에 이 때의 법령을 통해서이다. 실상 이 나라 포도밭의 90% 이상이 이곳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모라비아는 체코 남동부에 위치해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의 국경에

맞닿아 있다. 비교적 온난한 대륙성 기후를 띠며 강수량은 낮은 편이다. 이 지방에서 생산되는 와인의 2/3는 화이트 와인으로 대체로 굉장히 아로마틱한 스타일이며, 산도가 좋고 신선하다. 그 중에서도 체코의 토착종으로 빛은 빨라바(트라민과 뮐러 투르가우 교배종)로 만든 와인은 특유의 달콤한 과일 향과 개성 있는 맛으로 인기가 많다.

그 외 리슬링, 피노 블랑, 뮐러 투르가우, 그뤼너 벨트리너, 실바너, 생 로랑, 블라우프랭키쉬, 블라우 포르투기저, 피노 누아 등이 재배되는데, 인접한 오스트리아와 재배하는 포도종이 엇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에는 까베르네 소비뇽 같은 국제 품종도 증가하는 추세다. 체코의 와인 소비량은 자국의 생산량을 웃도는 수치다. 그만큼 내수 시장이 탄탄한 편이지만, 요즘은 해외 시장 진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주요 KWC 수상 와인**
- KWC 2017 Best Czech Republic White**  
Sonberk Riesling V.O.C
  - KWC 2017 Silver** Templarske Sklepy Rhein Riesling
  - KWC 2017 Bronze**  
ZD Sedlec Cabernet Sauvignon Rose
  - KWC 2017 Bronze**  
Zamecke Vinarstvi Zenec Terroir Moravia Collection  
Dobré Pole-Staré

# Georgia

조지아

와인의 기원을 이야기하면 코카사스 지역의 조지아가 거론된다. 2017년 11월,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 지역에서 발견된 8000년 된 도기의 파편은 현재까지 밝혀진 가장 오래된 와인 양조 역사의 증거물이다. 이 도기에는 와인에서 나오는 화합물들이 남아 있었다. 조지아는 전통적인 양조 방식으로 독특한 와인 스타일을 이어왔다. 입구를 내놓은 채 땅 속에 묻은 암포라(항아리 모양의 큰 토기)에 포도송이를 그대로 넣고 발효를 하는 방식이다. 이 암포라를 '크베브리(kvevri)'라고 하며 이 크베브리 양조법은 2013년 유네스코 무형 문화재로 등록된다. 근래에는 내추럴 와인이나 오렌지 와인이 인기를 얻으면서, 또 개성 있는 와인을 만들고자 하는 생산자들 사이에서 암포라 숙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조지아의 현대식 와인 양조는 1830년대 독일의 렌츠(Lentz)가 카케티(Kakheti) 지역에 유럽 스타일의 와이너리를 설립한데서 비롯됐다. 이 무렵 가장 인기 있었던 포도 품종은 토착종인 사페라비(Saperavi)와 독일 이민자들이 들여 온 뮌스까(Muscat)였다. 사실, 주변 나라들의 끊임없는 침입과 간섭에 조지아의 역사는 그리 순탄하지 못했다. 1929년 이 무렵 조지아의 와인 산업은 러시아 지배 하에서 소비에트 알코올 전매 기구가 통제했다. 이후 소련 붕괴 후 해체

되고 조지아의 와인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으나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을 겪고 경제적으로 단절되면서 또 한 번 어려운 시기에 놓였다. 조지아의 와인 산지는 크게 5곳으로 나뉜다. 이 나라 포도밭의 70%가 모여 있는 조지아 와인 산업의 중심지 카케티(Kakheti), 수도 트빌리시 주변의 카르틀리(Kartli), 서쪽의 이메르티(Imereti), 남서쪽의 아자라(Adjara) 그리고 라차-레쿠미(Racha-Lechkumi)와 크베모 스바네티(Kvemo Svaneti)다. 조지아에서는 토착종과 국제품종 모두 많이 재배된다. 가장 잘 알려진 화이트 토착종은 르카트시тели(Rkatsiteli)로 종종 엠츠바네(Mtsvane)와 블렌드된다. 레드 토착 품종 중에서는 단연 사페라비가 가장 유명하다. 그외 국제 포도 품종으로 까베르네 소비뇽,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알리고떼, 뮌스까, 까베르네 프랑, 말벡, 피노 누아, 메를로, 시라, 리슬링 등이 경작된다. W



- 주요 KWC 수상 와인**
- KWC 2019 Silver** Badagoni Kakhetian Noble White
  - KWC 2019 Silver** Badagoni Saperavi Reserve

